

테러리즘과 金日成王朝



調查研究室

제2 카운트다운

本 冊子는 日本 『文藝春秋』誌 1988 年 3 月號
에 실린 『非行國家 金王朝の威脅』(副題：誘拐, 暗
殺, 航空機爆破에 精力을 쏟고 있는 北朝鮮은 과연 어떤
나라인가) 題下의 北韓問題專門家 3 人의 座談會內
容을 翻譯한 것입니다.

이 座談會에는 日本 時事月刊誌 『현대코리아』研
究所長 佐藤勝巳, 共同通信 外信部次長 黒田勝弘, 東
海大學教授 林建彦等이 參席하여 KAL 機 爆破事件
에 따른 北韓의 테러리즘과 金日成王朝의 實體를 分
析하고 있는 바, 北韓研究에 參考하시기 바랍니다.

1988. 4.

調查研究室長 崔 文 鉉

座談會 參席者

佐藤勝巳(「現代코리아」 研究所 所長)

黒田勝弘(共同通信 外信部次長)

林建彦(東海大學教授)

- 誘拐・暗殺・航空機爆破에 精力을 쏟고 있는 北朝鮮은 어떤 나라인가?

〈本誌〉

「眞由美」(마유미-金賢姬)의 記者會見을 包含하여 韓國의 搜查發表를 들은 感想부터 먼저 말해 주십시오.

〈黒田〉

나는 그녀가 바레인에서 飲毒自殺에 失敗한 時點에서 이미 「自述은 빠를 것이다. 轉向은 時間問題다」고 말하기도 했고 글도 썼었지요. 그러니까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어 記者會見을 한 것 自體가 그다지 異常할 것 없었던 것이지요.

다만 一般的으로 全面自述을 한 者들은 會見場에서는 막힘 없이 말을 하는데 그녀의 경우는 아직 精神的 安定이 回復되어있지 못한 느낌이며 緊張感이 있었어요.

内外의, 특히 外信記者들의 要求에 따라 서둘러 記者會見을

하게 했다거나, 日本의 매스컴이 「수수께끼다. 수수께끼다」고 떠들어 서둘러 記者會見을 하게 한거나 다름없어요 (笑).

〈林〉

1月23日의 産經新聞 夕刊에 오히려 會見이 너무 빨랐다는 것을 示唆하는 記者가 있었습니다.

韓國의 情報機關에 가까운 消息通의 談話라 하여 「金賢姬 自身이 아주 消極的인데 그것을 說得시켜 끌어내었기 때문에 記者會見을 했을때 처음에 金賢姬가 質問을 받고도 1分餘동 안이나 말도 하지 않고 밀을 내려다 보고 있었을 때는 韓國情報機關의 關係者들이 모두 『혀를 깨문 것이 아닌가』하여 새파랗게 질렸었다」고 했다니까 그 會見은 모두가 꾸며진 것이다라는 一部の 말은 通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佐藤〉

나도 自述·轉向은 빠를 것으로 豫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北이 어떤 教育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教育받은 人間이 南을 自己의 눈으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하면 쉽게 想像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40年동안의 北에 依한 韓國報道(北이 말하는 韓國狀況)를 보면, 美國의 植民地이며 아주 한중밖에 안되는 富者

들이 國民을 擄取·收奪하며 軍事獨裁政權이 支配하여 人民들은 呻吟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實際로 서울의 거리를 보면 엄청난 差異가 있지요. 이 心理的인 落差에 부딪히게 되면 短時間에 「나는 속고 있다」고 되어 버리는 것은 참 잘 알수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는 過去에 「皇國臣民」이었습니다. 敗戰 2年後에 배로 샌프란시스코에 갔었습니다. 그때 金門橋를 지나서 샌프란시스코의 거리를 보고 이런 나라와 戰爭을 해서 이길 까닭이 없다. 짐승 美·英이며 美國은 도깨비들이 살고 있다 따위로 우리나라의 指導者들에게 속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 自殺에 失敗한 人間の 心理

〈林〉

「北」의 命命은 「失敗하면 죽어라」는 것이겠지요. 랭군事件 때도 한 名은 죽었지만 한 名은 살아 남았습니다. 그런 命命을 어긴 人間の 心理라는 것은 自殺에 失敗했을 瞬間에 逆轉합니다. 그 典型입니다. 그녀가 出發에 앞서 朗讀했다는 宣誓文에는 現在 「南朝鮮革命이 高潮되어 있다」고 하는 文句가 있습니다만, 지금 바로 南은 革命前夜이며 南의 住民들

은 塗炭의 苦痛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北의 對南路線은 「南半部 解放統一」로 一貫되어 있습니다.

「眞由美-마유미」로서는 南의 旅客機를 爆破하는 것이 革命을 前進시키는 것이 된다고 하는 외풍의 價値體系에 뿌리 박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自殺에 失敗하여 서울로 連行되어 전혀 判官인 서울의 現實을 본 瞬間에 急速한 心理的 崩壞作用이 일어났다. 이걸 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佐藤〉

그녀는 「皇國臣民」이었던 셈이지요.

〈黑田〉

거기에 또 어릴 때부터 엘리뜨였습니다. 텔런트出身이니까 映畫 좋아하는 金正日書記의 親衛隊였다고 생각해도 좋겠지요.

〈佐藤〉

그랬으니까 轉向할 때는 弱하지요.

〈林〉

日本の 一部에는 「7年間이나 專門的 訓練을 받은 人間이

겨우 1週日도 못되어 轉向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이
거야 말로 韓國의 捏造의 證據이다」 하여 一見 그럴싸한 意
見도 있습니다만 北쪽 人間의 精神構造를 전혀 모르는 소립니다.

루우스·베네딕트의 『菊花와 칼』에 「日本軍人만치 捕虜가
되었다가 轉向하는 것이 빠른 者도 없다」고 記述되어 있습
니다.

『戰陣訓』에서 「捕虜가 되어 恥辱을 당하지 말라」고 教
育을 받은 人間일수록 捕虜가 된 瞬間 自己를 喪失해 버리
며 그러면 轉向도 빠르다는 것입니다.

〈佐藤〉

日本の 매스컴은 人間認識이 잘못된 느낌이 듭니다.

그녀를 「골수분자」라고 말을 하지만, 確實히 8年가까이의
特殊訓練을 받기는 했지만, 訓練과 實際의 테러行爲와의 사이
에는 메울 수 없는 距離가 있습니다. 우리가 軍事訓練을 받
을 때와 戰場에서 敵과 맞붙어 싸울 때와는 큰 갭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人間이란 그런 것입니다.

實際로 저 두사람은 大韓航空機 안에서 마실 것도 마시지
않고 食事도 하지 않았으며 이야기도 주고받지 않았죠. 몇시
간뒤에는 爆發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둘 뿐이기 때문

에 極度の 緊張속에 있는 것으로서 그러한 緊張感을 몇번이고 거처온 人間만을 「골수분자」라고 부르는 것이며, 그點 처음으로 實戰에 나온 그녀는 「初年兵」인 것입니다.

〈本誌〉

서울의 거리를 보여주어서 自述하게 한다는 韓國 搜查當局은 언제나 그런 수를 쓰는가요.

〈黑田〉

대체로 이것은 日本의 過激派를 訊問하는 方式과도 닮아 있습니다만, 「자네는 잘 해냈어. 毒을 먹어서 忠誠心도 보여 주었다. 그러나 使命은 이제 다하지 않았는가. 앞날은 길다. 여기서부터가 君의 人生의 스타아트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마음을 열게 합니다.

이것은 日本의 新聞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搜查官과 理論鬭爭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 쪽에서 敗北를 是認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日本의 公安當局이 하는 方式과 같습니다.

一般的으로 말한다면 “市內 끌고 다니기”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온갖 곳을 보이고 밥을 먹이고 …… 이것은 아주 효과가 있는 手法이며 市内觀光코오스가 있어요 (笑)

롯데百貨店, 明洞의 변화가, 最近에는 또 60 몇層으로 東洋第一이라는 大韓生命保險빌딩도 있지요.

〈 林 〉

市場도 보인답니다. 이번에는 南大門市場에 데려갔어요.

〈 佐 藤 〉

그녀는 진술하면서 「市場에는 입을 것도 豊富하게 있고 먹을 것도 있어 그것이 가장 印象에 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林 〉

68年의 靑瓦臺襲擊事件에서는 그 襲擊前夜에 31名의 北의 武裝게릴러들이 靑瓦臺의 뒷산에 集結하였습니다. 그때 나중에 혼자 살아남아 投降한 金新朝의 述懷에 따르면, 서울의 夜景을 보고 크게 動搖했었다는 것입니다.

〈 佐 藤 〉

그래요. 電氣도 없는 것으로 教育받았던 서울의 거리에 휘황하게 불들이 켜져 있었다고 나중에 陳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契機가 되어 自己는 손을 든 것 같다」고.

〈林〉

그의 그 精神構造는 市를 본 「마유미」의 그것과 共通되어 있는 것 같아요.

○ 「가짜」說과 「自作自演」說

〈黑田〉

「마유미」의 會見이 있는 뒤에 타스通信의 記者로부터 電話가 걸려왔는데, 「서울로 移送되어온 “마유미”와, 記者會見에 나온 “마유미”와는 딴사람이라는 說이 있다. 머리털이 갑자기 길어져 있다. 共同通信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證據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一般의 視聽者들도 같은 것을 느낀 것 같은데 ...

〈本誌〉

일부러 「머리털은 한달에 1센치 자라는 것이 고작」이라고 말하는 東京都内の 어느 美容室의 커멘트를 실은 新聞도 있었지요(笑).

〈黑 田〉

그래서 좀더 확실히 해두기 위하여 서울支局에 電話를 걸어보았더니 移送되어온 「마유미」를 트랩밀에서 본 저의 社의 記者가 一笑에 불히고 말았어요.

「그때는 머리를 뒤로 묶어 두고 있었다」고(笑).

우리는 그것을 記事化하여 가짜說을 否定했지만 넌센스지요.

〈本 誌〉

公式으로 發表된 搜查資料以外的 것에서 「沐浴湯에서 뜨거운 물을 끼얹었더니 『앗 뜨거워』라고 처음으로 韓國語를 터뜨렸다」는 여러가지 興味있는 情報들이 있었읍니다.

〈黑 田〉

女性搜查官이 함께 沐浴을 했을 때 「마유미」의 몸에 칼자욱들이 있었다는 情報도 있었지만 搜查官은 否定하고 있어요.

어딘지 그녀가 女子이기 때문에 虛와 實이 뒤섞인 재미있고 우스꽝스러운 말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本 誌〉

訊問室에 대해서도 기둥도 아무것도 없는, 自殺을 못하게 고

무로 壁을 바른 房이라는 說이 있는가 하면, 아니 豪華版 호텔과 같은 房이라는 說도 있습니다.

〈黑 田〉

요컨대 直接 본 사람은 없다는 것이지요(笑).

在日韓國인이 거기서 間諜容疑로 逮捕되어 그때의 보고 들은 것들이 間接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搜查機關만 보더라도 警察外에 軍의 保安司令部, 이번의 國家安全企劃部등 여러 部署들이 있으며, 調查를 받는 쪽도 여러 레벨이 있어요.

그녀의 경우는 말하자면 VIP이기 때문에 롯데호텔의 스위트·룸과 같은 環境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拷問으로 衝擊死라도 하는 날이면 큰 일이니까요.

〈佐 藤〉

속크死라고 하면 昨年 6月の 韓國의 騷動은 當局이 學生을 拷問致死케 하여 그것이 內部告發에 의하여 新聞에 報道된 것이 發端이 된 것이었습니다.

釜山 福祉院의 院長이 警察에 賂物을 주고 호텔을 드나들고 있는 것을 寫眞을 찍어 中央日報에 送付한 것도 警察官이었습니다.

말하자면 盧泰愚의 6.29 民主化宣言이 나오기 전에 韓國에서 지금 말한 바와 같은 狀況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뒤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言論의 自由化입니다.

그런 판국에 일어난 것이 KAL 機事件이었기 때문에 조작을 한다면 大統領就任式을 눈앞에 두고 盧泰愚에게는 致命的인 것이 되지요.

國會議員選舉도 바로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韓國에서는 1週日도 秘密은 維持되지 못해요. 조작이니 謀略이니 하는 사람은 現在의 韓國을 잘못 본 것입니다. 4千萬韓國을 冒瀆하는 主張입니다.

〈 黑 田 〉

「조작」說이나 「韓國의 自作自演」說은 이를 壓縮해서 말하면 「細部가 緻密하지 않는 것이 殊常하다」는 말이겠지요.

이것은 어떤 意味에서는 日本的 價値觀의 強要입니다.

이를테면 爆彈을 座席위의 선반위에 두고 내렸다고 하지만, 선반은 스텐더디스가 點檢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좀 異常하다고.

그러나 日本航空의 스텐더디스를 TV에 나오게 하여 물어 보면 「우리는 언제나 點檢합니다」라고 밖에 말하지 못하는

것은 當然합니다.

〈 林 〉

정말 點檢하고 있을까 (笑).

〈 佐 藤 〉

海外旅行通에게 물어보면 途中에 내린 사람의 잊은 物件따위는 거의 살피지 않아요.

〈 本 誌 〉

바그다드에서의 搬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곳은 紛爭中에 있기 때문에 아주 체크가 嚴重하다는데.

〈 黑 田 〉

日本の TV가 事件現場들을 追跡해서 다녀보니까 바그다드는 大端히 嚴格했다고 ...

〈 佐 藤 〉

電池를 沒收당했다고? (笑)

〈 黑 田 〉

그것은 事件이 일어난 直後였으니까 當然합니다. 바그다드를 包舍해서 中東에 갔던 記者의 말에 따르면 체크는 그다지 심

하지 않다는 걸요. 특히 老人이나 女子 또는 外國人이 대들면 係員은 「알았다, 알았다」 하면서 보내준다고 합니다.

〈本誌〉

事件이 일어났을 當初에는 「老人과 젊은 女性의 한쌍이었기 때문에 警戒心を 늦추었다」와 같은 報道를 하고 있었는데, 韓國을 謀略하는 대목이 되면 便利하게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던 말입니다.

〈林〉

테러는 完璧主義로 할려고 해도 되지않는 것입니다. 臨機應變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죠.

〈黑田〉

完璧하지 않기 때문에 眞實味가 있는 것 아닙니까.

〈佐藤〉

再去年的 아세안게임의 直前に 金浦空港에서 爆彈이 터졌었지요. 日本이라면 現場保存이라 하여 한동안은 出入禁止가 되는데, 韓國은 그 다음날에는 벌써 피를 씻어내고 復元시켰어요. 그것이 韓國式이며 韓國的인 發想인 것입니다.

〈 黑 田 〉

現場을 씻어내어 버리면 日本에서는 「證據湮滅이다」고 떠
듭니다. 나도 서울特派員 時節에 이러한 事件의 現場들을 몇
번이나 보았읍니다만 아주 取扱이 簡單합니다.

대충이라고나 할까, 緻密하지 않아요. 朝鮮文化는 大凡한 것
입니다. 本質을 把握하면 細部에는 拘得되지 않는 것이 朝鮮
文化이며, 細部에 執着하여 本質을 놓치는 것이 日本文化이
지요.

〈 佐 藤 〉

韓國人으로 말한다면 「日本人이 日本의 挿查方式을 尺度로
하여 異常하다, 殊常하다 하는 것은 日本類의 搜查方法을 우
리나라에서도 하란 말인가」하는 印象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이웃나라와 사귀는데 있어서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 黑 田 〉

細部를 疑心하기 시작하면 限이 없어요. 北韓은 「峰岩 眞
一」(하찌야·신이찌)는 當局에 의하여 毒殺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林〉

南韓의 自作自演이란 主張이군요.

〈佐 藤〉

北韓은 12月25日의 朝鮮中央通信의 發表에서 「하찌야·신
이찌」와 「마유미」는 日本國籍을 가진 日本人이다라고 發表
하고 있습니다.

그 初期段階에 이러니 정말 엉망입니다.

〈林〉

日本政府도 異常해요. 最初의 官房長官의 談話만 보더라도,
누가 한 짓이냐하는 것은 말하지 않고 테러行爲는 매우 遺
感이라고 했어요.

그뒤의 北韓制裁措置에 있어서도 「各國의 하는 것을 慎重
히 지켜본 다음에 決定하겠습니다」라고 …….

日本은 韓國과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느
니 하면서 입으로만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 日本人이 疑心받게 되어 있었다.

〈本誌〉

假定の 이야기가 됩니다만, 萬若 「마유미」가 自殺에 成功했었다라면 이번과 같은 「自白」은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事件의 樣相도 아주 달라져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佐藤〉

나는 진짜의 峰岩 眞一(하찌야·신이찌)氏は 東南亞 旅行 때 없어지게 되어 있었다는 假說을 가지고 있습니다.

事實 峰岩氏 自身이 「나는 被殺되게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지금 생각하니 소름이 끼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東南亞 旅行은 그렇게라도 생각하지 않고는 그 目的을 전혀 알 수 없어요.

北으로 말하면 무슨 失手로 죽이지 못했었어요. 萬若 峰岩氏가 없어져 있었다라면 미야모토(宮本)라는 人物도 떠오르지 않았을 것이며, 「마유미」와 「신이찌」 두사람이 順調롭게 逃亡처 있었다라면 乘客리스트에 두사람의 日本人이름이 남아 있었을 뿐이었겠지요.

또 「마유미」도 죽어 버렸더라면 두 遺骸와 두권의 「日本人」旅券이 남을 뿐이지요. 그리하여 日·韓의 反目이 생기고 北韓의 그림자는 감쪽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서운 計劃이

었던 것입니다.

〈林〉

1974 年의 文世光事件에서 日本의 旅券이 쓰여진 以來로 韓國은 「日本이 北韓에 의한 革命의 前進基地로 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번에 萬若 完全犯罪가 成立되어 있었다라면 더욱 더 그 論理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日·韓의 離反이라는 것도 北의 目的의 하나였을 것입니다.

北韓의 目的에 관해서도 日本人들 사이에는 「올림픽을 못하게 한다 하지만 飛行機가 한대 떨어진 程度만 가지고 參加國이 적어지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라든가 여러가지 反論들이 있지만, 이번의 完全犯罪가 成功했다라면 어떻게 됐겠는가를 推定함으로써 北韓의 動機도 明瞭해집니다.

올림픽이 成功한다는 것은 北韓의 論理대로라면 「두개의 朝鮮」이라는 狀況을 固定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對南路線인 革命路線과는 180 度 다른 事態가 되는 셈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第2, 第3의 完全犯罪를 挑發하여 올림픽을 못하게 하려는 目的이 당연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副次的으로는 大統領選舉에도 큰 影響을 주었을 것입니다.
가령 KAL 機의 事件이 完全犯罪로 되어 北韓의 그림자를 立
證할 수 없었더라면 選舉가 가까와 지면서 支持率이 下降線
一路를 치닫고 있던 盧泰愚는 그 때문에 더욱 下降하여 野
黨候補가 當選되어 있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南의 民主勢力에 依하여 軍事獨裁政權이 後退했다면
北은 그것을 契機로 하여 올림픽을 내세워 平和攻勢를 했을
것입니다.

〈本誌〉

野黨候補가 當選된다면 金泳三입니까?

〈林〉

그렇겠지요. 서울의 婦人票가 豫想이상으로 盧泰愚에게 갔다
니까요. 83年의 비마事件을 보더라도 北의 意圖는 分明했읍
니다. 83年이라는 것은 全斗煥政權이 겨우 틀이 잡히고 있
을 무렵입니다.

서울에서 IPU (國際議員聯盟)의 總會가 열려 거기에 소
聯을 비롯하여 東歐의 代表들이 出席한다. 中共民航機事件을
契機로 中共의 民航局長이 서울로 간다. 말하자면 韓國이
社會主義國으로부터도 認定을 받게 되어 가고 있는 狀況中에

버마의 랭군을 訪問한 全大統領一行에게 爆彈이 裝置되어 主要閣僚들이 爆死하는 事件이 일어난 것입니다.

結果적으로 大統領은 禍를 피하게 되었지만, 萬若 死亡했다 라면 어차피 大統領選舉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光州事件의 傷處가 다시 터져나와 韓國은 大混亂에 빠졌을 것입니다.

混亂의 韓國을 보고 버마政府가 北의 工作員을 追跡, 索出에 힘을 들였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北이 宣傳한 「南의 自作自演」이 世界의 輿論으로 화할 霧圍氣는 充分했습니다.

〈佐藤〉

지금 이야기와 關聯됩니다만, 83년에는 IPU總會, 3年後에는 아세안게임, 그 2年後에는 서울올림픽이라는 스케줄이 있어, 83년이야말로 北에게는 올림픽霧散의 第1 라운드였던 셈이지요.

이 83年이라는 해는 한동안 잠잠했던 武裝共匪들이 陸路로, 혹은 韓國의 近海에 出沒하기 시작한 것이 6月前後. 9月에는 大邱의 美文化院이 爆破됨으로써 韓國의 反政府運動에 서는 往年에 없던 爆彈이 登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10月에는 IPU總會가 열렸다는 흐름입니다.

當時 내귀에 들어온 情報은 「北은 어떻게 해서라도 IPU 總會를 못하게 하려 들고 있다. 그것도 日本人을 내세워 못하게 한다. 日本人에 대한 工作도 相當히 進行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半信半疑였지만 大邱에서 爆彈이 터지고 랭군事件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85년에는 金浦空港에 爆彈이 裝置되었죠. 그러한 脈絡으로 간다면 大統領選舉가 아니라 서울올림픽妨害가 始作될 것이다하고 생각하고 있었더니 KAL機가 行方不明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直前に 逮捕된 丸岡(마루오카)가 10月27日附 서울行 航空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本誌〉

丸岡(마루오카)는 日本에 들어오기 前に 中共에 가 있었지요.

〈佐藤〉

네. 北京飯店에서 北의 對南工作 責任者와 만났다고들 합니다. 中共의 公安當局이 「무엇때문에 北朝鮮의 對南責任者가

와있을까」고 異常하게 생각되어 相對인 “殊常한 日本人”의 旅券番號와 이름을 日本의 警察에 通報함으로써 丸岡逮浦로 結付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日本의 公安도 半信半疑였다고 합니다. 成田空港에서 待期하고 있으니, 赤軍은 普通 複數로 行動하는데 飛行機에서 내려온 것은 한사람. 거기에다 手配寫眞도 젊었을 때의 丸岡과는 판사람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箱崎(東京市内에 있는 空港事務所)까지 尾行을 繼續해 보니까 사나이는 여기 저기에 電話를 걸기 시작하였어요. 이걸 틀림없다 생각되어 逮捕한 것입니다.

(黑 田)

日本 매스컴의 “수수께끼 好奇心”에서 말한다면 丸岡의 行動이야말로 수수께끼이군요.

(佐 藤)

그렇습니다. 그의 行動을 追跡해 나가면 아무래도 KAL機 爆破는 第1彈이고, 第2彈, 第3彈이 準備되어 있을 것이 틀림없어요.

서울·올림픽을 沮止시킬려면 非常戒嚴令을 펴게 만드는 것이 必須이기 때문에 非常戒嚴令을 宣布케 하려면 이를테면 野

黨의 大統領候補를 한사람 없애는 것입니다.

〈黑 田〉

그렇게 되면 第2의 光州事件이지요.

〈佐 藤〉

그 程度가 아니라 온통 韓國이 大混亂에 빠집니다. 그 程度의 일을 저질르지 않는 限 서울올림픽은 沮止할 수 없지요.

뮌헨올림픽 때에 이스라엘의 選手村이 襲擊되어 近10名이 被殺되었으나 올림픽은 續行되었으니 말입니다.

○ 最大의 수수께끼는 北朝鮮이라는 나라

〈黑 田〉

飛行機에 爆彈을 裝置하는 것이 올림픽沮止가 된다고 理解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說明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KAL機事件 하나만을 가지고 보면 알기 어렵다. 그러나 그것은 jig saw puzzle (실톱놀이)의 1片이며, 어쩌면 올림픽이 進行될 9월까지에 다른 1片, 2片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번의 失敗로 puzzle의 設計는 修正되었을지도 모릅니다.

〈本誌〉

그 設計를 알기 위해서는 北韓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고 싶은데요.

〈黑田〉

KAL機事件의 수수께끼니 하고 있지만, 事件은 조금도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수수께끼는 北朝鮮인 것입니다. 그것이 풀리면 事件의 수수께끼도 금방 풀리지요.

〈佐藤〉

金日成政權의 唯一·最大의 政治目標은 韓國을 美國의 植民地로부터 解放시킨다는 것입니다.

1950年의 韓國戰爭을 비롯한 一連의 武裝계렬러와 테러는 모두가 그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서울을림픽沮止도 그러한 脈絡속에 있는 것이지요. 世界의 161個國이 서울을 보고 그러한 나라는 아니라는 것이 判明되어 아무도 北을 相對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南朝鮮 解放」의 破綻인 것입니다.

그건 어찌됐든 올림픽의 「共同開催」니 하는 것도 년센스

인 소리며, 北이 지금 建設中에 있다는 올림픽施設만 하더라도 그것은 1989年에 열릴 世界青年學生祭典을 爲한 것이며, 現在는 아직 外廓를 뿐이고 속은 텅비어 있어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通信施設같은 것은 日本에 去來問議가 왔었지만 튜우너같은 것은 코뎀에 걸리기 때문에 日本은 拒絶했어요. 그렇다고 소聯이나 中共이 금방 時限內에 通信施設을 만든다는 것은 꿈같은 소리인 것입니다.

첫째 『共同開催』가 實現되어 韓國과 西方側의 사람들이 몇萬名이나 北에 가 보세요. 北朝鮮의 全人民이 「마유미」가 되어 버립니다.

共同開催를 하게 되면 北의 사람들도 韓國에 옵니다. 그러면 또 「마유미」가 되어요(笑). 그런 危險한 짓을 執權者가 저지를 까닭이 없지요. 그러니까 「共同開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宣傳인 것입니다.

南北韓 單一팀을 보더라도 金大中氏가 當選된다 해도 實現될 수 없어요.

團長을 누구로 하느냐,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가. 選手들은 어떻게 選出하느냐. 이것만도 그 協議에 5年은 걸립니다.

北에 남아 있는 方法은 앉아서 서울올림픽의 成功을 손가락을 입에 물고 지켜보느냐, 아니면 깨틀여 버리는가 ...

〈本誌〉

北과 함께 올림픽을 할 수 있다면 北이 테러로 올림픽을 깨뜨리려 들지도 못할 것이고, 韓國은 앞으로도 北을 끌어들이는 努力을 繼續하게 될 것이라는 見解도 있는데요.

〈黑田〉

安全保障을 위하여 北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北이 서울올림픽의 成功을 위하여 錦上添花의 짓을 해줄 것 같은가요. 더구나 北의 人民이 全員 「마유미」처럼 轉向하면 큰일이니까요.

〈佐藤〉

도대체 北朝鮮이란 나라는 近代國家도 社會主義國家도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74年 2月 11日의 勞動黨 中央委員會에서 採擇된 『黨의 唯一思想體系 確立의 10大原則』이라는 決議에는 金日成父子에의 絶對的忠誠과 그 命令의 無條件實踐이 記載되어 있어서 金正日을 公式文書로써 後繼者로 認定하고 있습니다.

唯一指導에 대한 絶對的忠誠과 個人神格化를 黨의 中央委員會가 文書로써 採擇한 것은 이 나라가 最初인 것입니다.

아무리 스탈린의 神格化가 進行되고 있을 때도 소聯共產黨은 그러한 文書를 採擇하지 않았어요.

朝鮮勞動黨은 맑스·레닌主義의 黨은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近代國家의 要件의 하나는 三權이 分立되어 있다는 것인데, 지금의 文書로도 알 수 있는 마와 같이 最高權力者에게 三權이 集中되어 있는 나라는 近代國家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具體的으로는 어떤 形態로 나타나느냐 하면, 1977년에 내가 KCIA에서 北韓擔當을 하고 있는 9局의 幹部에게 물어 본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韓國에 있는 北의 工作員이 本國에 報告하는 電波를 다 듣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알맹이는 正確하게 報告되고 있는가」고 물었더니 「되고 있지 않다. 具體的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이를테면 10개 있으면 2個로 報告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과연 그렇겠군 하고 생각했어요.

正確하게 報告하면 本國(北)의 首腦部는 「너는 思想的으로 問題가 있다」고 나온다고 합니다.

即, 金日成의 입맛에 맞는 報告를 要求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幹部自身이 疑心을 받게 됩니다. 그 結

果 最高權力者가 내리는 決定은 잘못된 報告를 土臺로 한 잘못된 것이 되고, 더구나 그 決定은 無條件으로 實行하지 않으면 안되는 등 이러한 構造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本誌〉

그리고 이번의 事件은 過激分子의 犯行이니 金正日의 過剩忠誠이니 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

〈佐藤〉

千萬의 말씀. 비록 金正日이 했다해도 그 아버지는 반드시 체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968年의 靑瓦臺事件과 74年의 文世光事件, 83年의 랭군事件, 이번의 KAL機事件등등 19년 동안에 네번이나 이런 類의 事件은 일어나지 않아요. 모두가 金日成의 指導입니다.

〈林〉

이번의 事件은 그들의 對南政策의 論理的인 歸結인 것이겠지요. 勞動黨規約에는 「全國的인 範圍에서 民族解放과 人民民主主義革命의 課題를 遂行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全國的인 範圍에서」라는 것은 南도 包含해서 하는 뜻입니다.

北에는 3大革命小組라는 金正日의 親衛隊로서 組織된 革命 그룹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金日成이 「우리 祖國의 統一을 實現하고 朝鮮革命의 全國的인 勝利가 될때까지 代를 이어 革命을 繼續해 나가는 것이 青年의 榮光된 任務이다」라고 그 任務을 과하고 있어요. 金賢姬도 아마 이 그룹에 들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南의 解放이라는 基本路線이 黨大會에서 修正되지 않는 限 革命解放路線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黑 田〉

北을 理解하는 口號는 「우리식대로」—— 우리가 하는 方式대로라는 말인 것입니다.

테러를 거듭하면 점점 더 國際的 孤立이 더해진다는 것은 밖에서의 見解이지 그들에게는 「우리식 대로」이기 때문에 孤立感은 없습니다.

〈佐 藤〉

確信犯인 것이지요.

〈黑 田〉

中共은 開放政策을 推進하고, 소聯도 旋回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友邦으로부터의 壓力은 當然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에 대하여 北이 強調하고 있는 것이 「우리식 대로」입니다.

中共이 무슨 소리를 하건, 소聯이 무어라고 하건 우리는 우리식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本誌〉

「우리의 方式」이라고 하지만 그것에 日本人이 끌려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旅券問題도 그렇지만 拉致當한 日本人 男女가 있고 第18 富士山號의 問題도 있습니다.

〈黑田〉

이것은 北도 南도 包畵한 問題가 됩니다만, 이를테면 옛날의 金大中事件만 하더라도 어딘지 저쪽 사람들의 意識에는 日本과의 사이에 울타리가 없어요.

日本の 舊植民地였다는 問題도 있겠지만, 日本과의 關係를 國際社會에 있어서의 나라와 나라와의 關係로서 把握하고 있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林〉

金大中事件에서 본다면 日本의 主權을 侵犯했다는 意識이 없

다는 말인가요.

〈黑田〉

그렇습니다. 比較的 自由롭게 海岸線을 드나들고 있고(笑).

그 意識은 日本人에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유미」事件만 보더라도 이렇게 떠들여대는 것 自體가
올타리意識이 없는 것이지요.

〈佐藤〉

남의 나라 大統領選舉를 徹夜로 衛星中繼한다거나 말이지요
(笑).

○ 주어지지 않는 自轉車

〈黑田〉

1978 年에 北에 誘拐당한 韓國의 映畫監督 申相玉氏와 女
優 崔銀姬氏 夫妻는 그 뒤에 美國에 亡命해 있습니다만 夫
妻가 最近 手記를 發表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金正日書記가 이
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映畫水準 向上을 위하여
당신들의 技術이 必要해서 모셔왔습니다」고, 그리고 申監督의
아들이 서울에 남아 있다는 것을 알자 「萬一 寂寂하다면 아

들을 데려와도 좋습니다」(笑).

무엇이든지 마음먹은 일은 무엇이든 해치웁니다. 對南工作은 內部問題라는 基本認識이니까 國際的 影響따위에 대한 配慮는 없어요.

〈林〉

金正日主導로 平壤을 樂園都市로 만들겠다는 計劃을 알고 계신지요.

그때문에 國力の 豫算이 浪費되어 地方에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3年連續의 水害, 그것도 人災로 인한 農業不振으로 國民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平壤에 103層의 超高層빌딩을 짓는다고 하고 있으니 ….

〈佐藤〉

北은 日本에 대하여 700億円の 貿易代金を 支拂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金利가 붙어 있으며 14餘年동안이나 凍結狀態에 있습니다.

昨年 8月에 西方側 銀行團(140行)으로부터 破産宣言을 받을 程度입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15萬名 受容의 蹴球場을 짓느니, 超高

層빌딩을 짓느니 ….

物品을 팔고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쪽에서 본다면 이것은 犯人集團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어쨌든 모든 것이 「우리식 대로」인 것입니다.

〈林〉

랭군事件 때는 中共도 國際적으로 「不良輩」의 烙印이 찍힌 손을 내밀어 美·韓·北朝鮮의 3者會談을 斡旋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中共도 손을 뺐 모양이며 이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느낌의 聲明을 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소聯도 머리를 좀 식혀서 再出發하지 않는 限 뒷바라지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態度입니다.

中·蘇도 이번만은 서울올림픽 優先입니다.

3年連續의 水害로 北의 食糧生活의 逼迫相은 想像을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昨年 여름에는 韓國도 大水害를 입었읍니다만, 같은 태풍이 北上하여 北을 몽땅 훑어 버렸습니다.

北은 엉망인 農業政策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山野가 完全히 荒廢해 버렸습니다. 조금만 비가 오면 土砂가 흘러내려 버리는 狀態로.

日本の 매스컴은 쓰지않고 있지만, 1986年 10월에 金日成

이 갑자기 소聯을 訪問한 最大의 目的은 「食糧을 도와달라」고 求乞하는데 있었읍니다. 소聯은 13萬톤의 쌀을 提供했던 모양인데 다음해인 87年에 金日成이 中共에 갔을 때도 食糧援助를 청하고 있어요.

이처럼 食糧은 逼迫해 있는 것입니다.

〈佐藤〉

昨年 11月の 李根模總理의 北京行도 食糧입니다. 지금 쌀이 1인당 대하여 雜穀이 9의 比率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配給이 제때 되지 않기 시작했어요.

雜穀은 무엇인가 하면 大豆를 壓縮한 찌꺼기인 것입니다.

〈林〉

그것도 하루에 두끼라 합니다.

〈佐藤〉

北으로 歸國한 肉親을 가진 在日朝鮮人은 9萬名가량 있습니다만, 그들은 「우리는 配達商人이다. 1年에 한번은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配達해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스스로를 嘲笑하고 있답니다.

〈黑田〉

最近의 이야기로는 食鹽이 없다고 해서 소금을 가지고 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本誌〉

「마유미」의 記者會見을 北의 사람들은 볼 수 없었겠지요.

〈佐藤〉

그런것은 생각조차 못합니다. 라디오의 다이얼은 固定되어 있어요. 勿論 黨幹部들은 TV나 라디오로 南의 放送을 視聽할 수 있지요.

北朝鮮의 사람은 郡에서 外部로 나갈 때는 許可가 있어야 합니다.

自轉車도 없어요. 함부로 自轉車를 주었다간 마음대로 國內로 돌아 다니게 되니까요.

○ 『1984年』의 世界

〈本誌〉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北은 “自閉症國家”로도 “非行國家”로도 생각이 듭니다.

〈 黒 田 〉

東京駐在의 소聯의 記者가 한 말로는 소聯의 特派員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가장 나쁜 곳”은 平壤이며 그 다음이 다카라고 합니다.

〈 佐 藤 〉

저 管理體制는 바로 조오지 오웰의 『1984年』의 世界입니다. 거기에 登場하는 「偉大한 兄弟 — 빅 부라더」를 「偉大한 父子」로 바꾸어 놓으면 그대로 通用됩니다.

오웰은 1947年에 北朝鮮의 世界를 그렸으니 참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 林 〉

그러니까 지금 北은 國內적으로는 國民을 먹여 살릴 수 없게 되어 가고 있고, 對外的으로는 中·蘇로부터도 싫증을 느끼게 되어가고 있는 참으로 千仞絶壁에 서 있는 셈입니다.

〈 佐 藤 〉

그 端的인 表出이 서울올림픽 參加問題인 것입니다. 이 數年에 걸쳐 北은 「參加하지 말아다오」 하는 뒷工作을 繼續해 왔는데도 不拘하고 모스크바도 北京도 東歐諸國도 全部가

參加를 表明하였습니다.

經濟는 逼迫해 있고 國際적으로 完全 孤立化되면 內部崩壞로 치달게 되지 않을 수 없지요.

〈黑 田〉

金日成體制는 世界第一의 長期政權이며 今年으로 76歲가 되지만 지금 父子一體이기 때문에 함께 政權交替가 되지않는 限 지금의 路線이 繼續됩니다.

〈林〉

끝에 가서는 內部崩壞한다고 하면 越南의 고·딘·디엠政權과 같은 末路를 걷는다는 極端的인 觀測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本 誌〉

그러면?

〈佐 藤〉

이른테면 金父子가 暗殺당한다거나 쿠·데타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民衆暴動이 일어나거나, 이 세가지가 되겠지요.

거기에 이번에는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韓國도 自重하고 있지만, 115名이 테러로 殺害되기도 언제까지나

가만히 팔장을 끼고만 있겠습니까.

실제로 랭군事件 때는 全斗煥大統領이 軍의 幹部들을 모아 놓고 「輕舉妄動하지 말라」고 누르지 않을 수 없었으리만치 激憤했으니까요.

〈黑田〉

當時에 나는 그곳(韓國)에 있었읍니다만 어느 空軍基地에서는 報復爆擊해야 한다고 將兵들이 血書까지 썼어요.

〈佐藤〉

그렇다면 그것은 日本의 旅券이 利用되기도 하고 日本이 前進基地로 쓰이게 된다는 것으로 인하여 韓半島에 戰爭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美·蘇間의 緊張을 高潮시켜 世界戰爭으로까지 發展시킬지도 모른다는 것으로서 日本政府라든가 日本國民은 거기까지 생각해 둘 必要가 있다는 말이지요.

〈本誌〉

中東紛爭도 역시 레바논은 남의 일이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팔레스타인·게릴라의 出擊基地로 되어 紛爭에 휘말려 들게 되어 버렸습니다.

日本으로서는 결코 강건너 불이 아니라는 것이겠지요.

〈黑 田〉

文世光事件 以來로 韓國은 「日本經由의 對南工作을 어떻게 해달라」고 繼續 말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佐 藤〉

이번의 事件에도 「마유미」의 教育擔當과 그밖의 拉致事件에 在日朝鮮人이 관련되어 있다는 情報도 있답니다.

警察當局은 「宮本 - 미야모토」와는 別個의 그룹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林〉

日本이 北의 對南基地로 되어 있다는 問題에 관해서는 日本人은 매우 둔한 反應밖에 보이지 않아요.

文世光事件이 일어났을 때 適切한 對應을 했었다라면 이번의 事件도 未然에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本 誌〉

外政問題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새에 內政問題로 되어 있었다는 꼴이 될지도 모릅니다.

〈佐藤〉

바로 그렇습니다. 第18富士山號의 事件만 하더라도 日本政府는 좀더 毅然한 態度로 나와야 합니다.

北에 連行된 채 아직 돌려보내 주지 않고 있는 두사람은 말하자면 人質인 것입니다.

北으로부터 이 富士山號를 타고 日本에 亡命해온 사나리와 北朝鮮은 人質交換할 생각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나리는 密航者이고 富士山號의 두사람은 被害者인 것입니다. 그것을 交換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國際적으로도 日本國民의 人權尊重의 뜻에서도 人質外交는 말이 안된다는 것을 國際機關에 強力히 交涉해야 합니다. 그것을 뒷거래로 몰래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쪽으로서도 두사람을 人質로 잡고 있는 것이니까 그쪽이 強하게 될 수 밖에 없지요.

〈林〉

分別없는 無事安逸主義가 아닙니까. 日本의 原則이 없는 態度가 오히려 北에게 人質外交를 許容하는 結果가 되어 있습니다.

〈本誌〉

1月24日字「赤旗」를 읽어 보면 宮本議長이 『大韓機爆破事件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題下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社會黨은 眞相不明이기 때문에 커멘트 할 수 없다라는 態度입니다. 우리는 『北』의 工作員의 所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根據로서 宮本議長은 爆破로 死者가 115名이나 나왔다는 것, 2名의 人物이 自殺을 企圖하여 한명이 죽고 한명이 살아 남아, 그 살아 남은 한명이 記者會見에서 自己 스스로 爆破했다고 表明한 것을 들어, ‘저지른 것은 北이다’고 正確히 보고 있다 — 이렇게 斷言하고 있어요.

〈黑田〉

日本の 第一野黨인 社會黨은 스스로 判斷을 못하는 것이구먼요.

〈佐藤〉

도대체 社會黨은 北을 國家로서 認定하고 있지만 南을 認定하고 있지 않아요.

〈 林 〉

아니 社會黨도 「UN同時加入」에서 양쪽을 認定하려고 했다가 金日成의 말 한마디에 態度를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우습지요 (笑).

金日成이 「하나의 朝鮮」論을 말한 순간 그에 迎畱한 것입니다.

○ 日本人 教育擔當의 必要性

〈 本 誌 〉

이 雜誌가 나올 무렵이면 分明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유미」의 教育擔當인 「恩惠」가 日本人이라면 무엇때문에 「아주 보통의 日本人」을 教育擔當으로 할 必要가 있는 것입니까.

〈 佐 藤 〉

23歲에서 25歲가량의 日本女性이 「마유미」의 日本人化教育에 必要했었다는 것이겠지요.

〈 林 〉

그래요. 金賢姬와 같은 나이의 女性이라는 것이 必要했지요.

〈本誌〉

그렇지만 拉致事件은 10年前的 일이고, 지금 그女들은 30代의 前半이 아닙니까. 25歲의 金賢姬와는 나이가 다릅니다.

〈佐藤〉

아니, 日本에서 잡아갈 時點에서 日本에서의 風俗과 習慣은 停止되어 있는 것이지요.

即, 23歲에서 25歲의 女子의 行動舉止와 말씨를 注入시켜 마유미를 만들어 낼 必要가 있었던 것이지요.

北에는 日本에서 北送되어 간 在日朝鮮人이 있지 않습니까, 朝鮮人과 結婚한 日本人妻도 있지않습니까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50歲에서 60歲의 나이가 된 그녀들의 生活習慣은 1世代도 2世代도 낡았어요.

지금의 女子아이들은 손가락 세개를 짚고서 「어서 오십시오」式의 人事는 하지 않으니깐 단번에 들통이 나지요.

〈本誌〉

세상의 男女들이 拉致되었다면 第2, 第3의 「마유미」가 테러를 일으킬 可能性도 있겠군요.

〈佐藤〉

아니, 男子도 똑같이 日本人化 教育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5件은 일어날 計算이 되지요. 다만 말해두고 싶은 것은 日本人이 拉致된 것이 알려지면 당연히 日本人들 사이에 北에 대한 反撥이 일어날 것이며, 日本政府가 嚴重히 抗議할 必要도 있겠지만, 치마 저고리를 입고 다니는 朝總聯系의 아이들에게 행패를 부린다거나 못살게 구는 짓들만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罪도 없으며, 그런 形態로의 態度表明은 問題를 低次元의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黑田〉

오히려 問題의 本質을 흐리게 합니다. 「마유미」도 그렇지만 朝總聯系의 사람들도 실은 本國 路線의 犧牲者인 것입니다.

〈林〉

差別이라는 誤解를 받을 짓은 하지말아야지요. (끝)

〈文藝春秋, 88年3月, 166-178面〉